

제9차 국민행동 규탄대회, 종각타워 앞에서 개최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나눔의집에 성금 전달

박용국 기자

다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12절)

◆베드로 전서 3장 1-12절

1.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흙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열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관계란 무엇일까요?

‘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깨달으려면 운전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운전을 조금 빨리 하는 사람이라면 정속주행을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는 사

람으로 인해 앞길에 막혀 있다면 속이 답답합니다.

운전을 조금 느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난폭함에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거나 상대방을 경멸하고 있는 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스캇 솔즈의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라]에 나오는 글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미디언 조지 칼린은 세상에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다고 말했다. 바보 운전자와 미치광이 운전자다. 나보다 느리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치광이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향해 우리가 가지는 감정 ‘꼭 바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한 fact로서의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꼭바르다는 기분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통제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서 기자가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관계가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아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면서부터입니다. 아니, 깨어지지 않는다 해도 통제하려는 사람과 그 통제를 힘들어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서도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면서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관계의 시작은 ‘나’의 통제로부터 ‘하나님’의 통제로 권한을 이양하는 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들은 말이 ‘너 목사아들이. . . 목사 아들답게. . .’라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언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의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을 참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받거나 피해가 가는 것을 못 견뎌 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참 많기 때문이죠.

물론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늘 부모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보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스캇 솔즈가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를 두는 어려움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일은 내 몫이 아니다. 격정이 되긴 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한다. 특히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이리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한다. . .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항상 더 낫다.”

◆중요한 신앙적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아내’들을 무척 불편하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일관성 있는 견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흙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이 있다면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같이,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말로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행실로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지 ‘강요’가 아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는 아내들이 있다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

합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순종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진정한 단장과 태도는 이러합니다. 4절 말씀.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 ‘inner self’

‘하나님 앞에 값지다’라는 말을 베드로 2장과 연관 지어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합니다.

‘하나님 의식’이 살아 있을 때, 고난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환난을 당해도 능히 견딜 수 있도.

아내가 남편 앞에서 행하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결으로 잘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 ‘inner self’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에게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값진 것입니다.

영여 성경에 표현된 ‘everlasting ornament’라는 말, 즉 썩지 아니할 장식이 바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입니다.

3절과 연결 지어 본다면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지못할 말 되지 않습니다.

쇠를 구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불로 가열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강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지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맹자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문화생이 연로한 맹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강한 게 오래갑니까? 부드러운 게 오래갑니까? 그때 맹자는 대답은 안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서는 자기 입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내 입 안에서 뭐가 보이냐? 허만 보입니다. 그렇다. 이 뺨은 강해서 오래 갈 것 같지만 내 이는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기 혀를 보라. 부드럽고 약하지만 결국 강한 이빨 보다 오래 가는 게 부드러운 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gentle’ 남자고 여자도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하고 예의가 바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살다보면 아내와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것은 커다란 사건보다는 아주 사소한 언행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의식하지 않는 부주의함에서 기인하는 것들이죠.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

다육 행동에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gentle’을 ‘조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안정된 심령’이라 하는데 NIV 성경에서는 ‘quiet spirit’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제 우리는 조용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아닐까요?

혹 우리가 상대방 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도 모르는 세에 자기중심적이 되었거나 고집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스럽게 되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게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단순히 연령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지위도 높아집니다.

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 데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란 단순히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지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 ‘great worth in God’s sight’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가운데 많은 신앙적 질문들이 풀려나갑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궁금한 모든 이에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린 시절 수련회에 가서 혹은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경 암송대회’라는 것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밥을 먹을 때면 한 구절 암송하고 합격을 받아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대로 살기 대회’를 해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참다운 지식은 삶으로 나타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한 군데를 택해서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를 택해서 ‘살아보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말씀을 따라 살아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외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

찰스 쉐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원석이 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의 원 제목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라” (In His steps)이고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쉐던은 토파카 시에 위치한 섀트럴 회중교회에서 매주 저녁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씩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던 원고를 모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TV 드라마 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사람들은 설교를 기다렸고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원석의 책에 나오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세 수도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외딴 섬에 세 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주교가 이 섬을 찾아가서 보니 이 수도사들이 주기도문조차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셋 다 주기도문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만족하며 섬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보니 세 수도사가 바다 위를 걸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에 올라와서 말하기를 주기도문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교는 이들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믿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인들이시여,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세 수도사가 자연스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GODIVA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www.godiva.kr

윤리적 실천보다 자연스런 인간적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었

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규칙을 정해놓고 행하는 것을 때로 '인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

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규칙을 세워 놓아도 또 부족한 규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규칙을 세우면 세울수록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입

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세워놓은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성품에서 자리 잡게 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의무’로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무로 느껴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의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품이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의식하지 않아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

◆‘지식’은 ‘가이드라인’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7절.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첫째는, 아내는 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둘째는, ‘respect’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거’라는 말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인데, 참다운 동거 즉 삶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내를 안다는 지식’이 정말 아내를 이해하는 차원에 있는 것인지를 말입

니다. 어떤 이해인가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연애할 때는 아내가 참 ‘약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보니 늘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내는 이 세상에서 살다 헤어질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동역자임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한 내용인데, 베드로서 기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리스도와 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통로인 기도는 막혀 버린 것입니다.

즉, ‘존재’에 대한 말이 아닐까요?

남편으로서 올바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아내에게 요구했던 것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

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insight of God) 와 ‘지식을 가지고’ (considerate)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심지어 마귀도 피상적인 의미에서 선한 행위로 ‘바른’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옳은 일’ 이상의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많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누가 개척을 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제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자훈련’을 통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기 보다

는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을 얼마나 세련되게 수행하느냐를 가르친 것은 아닐까요?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제자가 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까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행위란 언제나 불안하지 않을까요?

‘올바른 지식’이란 올바른 행위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선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 .

이런 새로운 관계적인 차원에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8-12절.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

리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입장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와 그를 통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일련의 계획을 수행하시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topline blessings 즉 ‘상단의 복’이라고 하며,

이러한 축복은 좁게는 자신이 속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넓게는 교회 및 선교지를 통하여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를 bottomline blessings 즉 ‘하단의 복’이라고 한다.

물론 이 축복은 이미 창세기 3:15절에

고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배웠던 2장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서 다시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뿐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말입니

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은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8-12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9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이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 라는 모습을 꼬집은

풍자적인 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원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 3부 -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일,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일,

오히려 복을 비는 일. . .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의 진리를 착각하는 것은 ‘easy way’와 ‘true way’를 종종 동일시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 집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서 기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삶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진리만 깨닫는다면 해도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항변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2016년 8월 20일 연합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에 물건 대신 가져온 ‘헬리콥터 부모’ 돌아가세요!]

내용입니다.

美고교 방침 화제…학생 자립심·책임감 신장 노력에 대다수 반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의 한 남자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고자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의 학교 출입을 막아 화제에 올랐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면서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잉보호하려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아칸소 주 리틀록에 있는 ‘소년을 위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지난 10일 학교 현관에 헬리콥터

부모에게 보내는 공지문을 한 장 붙였다.

아들 물건 대신 가져온 부모에게 돌아가라는 공지문이 붙은 미국 아칸소 주 한 고교[소년을 위한 가톨릭 고교 홈페이지 캡처]

“아들이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잊고 나온 점심 도시락, 교과서, 과제물 등을 대신 가져오셨다면, 몸을 돌려 학교 건물 바깥으로 나가세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라는 내용이 공지문에 적혔다.

학교 측은 운전할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 표지판인 ‘스톱 사인’을 공지문 위에 붙여 출입 금지를 강조했다.

스티브 스트래슬 교장에 따르면, 사립 학교인 ‘소년을 위한 가톨릭 고교’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까먹은 지참물을 부모가 가져다주는 것을 금지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침을 잊고 최근 학교에 공지문을 붙였다.

스트래슬 교장은 “도시락을 안 가져온 학생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학교 식당에서 배를 채울 수 있고,

책이나 체육 비품 등은 학교에 여분이 있는 만큼 선생님에게 말해 대여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엄마나 아빠가 없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립 능력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우리 학교의 여러 방침 중 하나”라면서 “우리 학교 학부모들에게서 불만을 터뜨린 이는 없지만, 모든 학교에 이 원칙을 권유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녀들을 버려놓는 것은 부모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버려놓는 것은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들이라고 말입니

다. 교회는 교인들이 쉽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왜 필요하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 진리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福)의 리더십

코칭한국 국제협회
대표 파터 정 선교사

리더십
칼럼



10여년 전 인디애나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클래스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그날은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날이었어”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버나비에서 열린 맥스 치즈몬(Max Chismon)에 의해서 시작된 ‘카이로스’ 선교훈련이 그 기억을 되찾게 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그

언약에 관한 해석이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다. 이 해석은 전방위 선교사였던 돈 리처드슨(Don Richardson)의 강에서 상단의 복(topline blessings)과 하단의 복(bottomline blessings)으로 구분되어서 자세히 설명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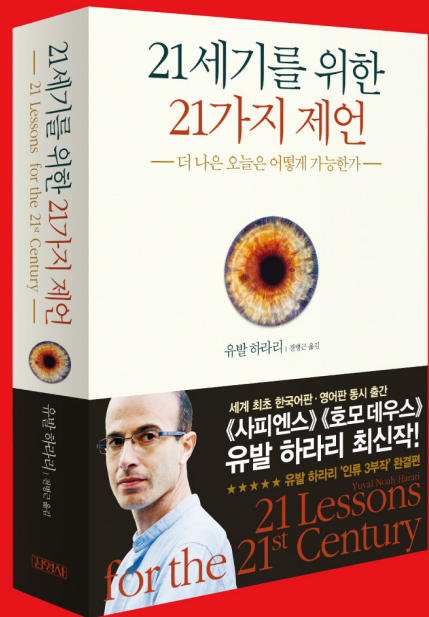
서 아담과 이브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언급된 내용이다. 비록 하나님과의 연합을 거부함으로써 아담과 이브가 생명의 축제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에서는 머물 수 있게 된다. 또한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또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리더로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초기에 조카 롯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상단의 복(topline blessings)을 나누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 및 부의 축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과 온 민족을 위한 언약의 리더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해 하단의 복(bottomline blessings)

또한 나누어야 할 책임감을 저버려서는 안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섬김의 리더십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실천은 단순히 교회나 선교회에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영적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참된 영적리더십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장자권과도 연결이 된다.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배코라’라고 하며 이는 ‘태를 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다. 장자의 특권은 가정의 권위를 이어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치 못하고 바알 숭배로 인해 멸망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후에 유다지와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이는 장자로서 맡은 리더십이 세상의 정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을 이어 갈 장자 즉 리더의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그 자리의 모습만 즐기고 주어진 사명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 또한 죽은 리더십만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만족하고 만족하게 된다. 죽은 상단의 복(topline blessings)만 손에 쥐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그 리더의 길이 어둡고 험난하고 안개에 쌓인 길이거나 혹은 가시밭 길을 걷는 것 만큼 처절하고 힘들더라도 그 진정한 장자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당당하게 응답하면서 하단의 복(bottomline blessings)을 베푸는 제사장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福)의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미 상단의 복(topline blessings)을 받은 당신은 어떠한가? 그리고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받은 당신은 진정으로 ‘복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에 이은 ‘인류 3부작’ 완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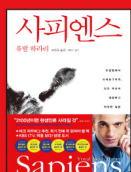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세계 최초 한국어판·영어판 동시출간!
일, 자유, 테러, 탈진실, 기후변화, 민족주의의...
기묘에 선 21세기 사피엔스가 기다려온 책.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

유발 하라리 | 전병문 옮김 | 572쪽 | 22,000원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가장 위대한 책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 조현욱 옮김 | 이태수 감수 | 636쪽 | 22,000원



신이 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대담한 책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 김경주 옮김 | 630쪽 | 22,000원

김영자
TEL 031)955-3100
www.gimyoung.com

